

경남 '창원짚트랙' 코로나19 '언택트 여행지'로 주목



1



2



3

1 제트보트 2 짚트랙 3 지상 위 94m에서 체험하는 엠티워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할 만큼 많은 것이 바뀌면서 여행 트렌드도 크게 변했다. 소수 지인과 단출하게 떠나는 '언택트 여행'의 새로운 여행지로 '창원짚트랙'이 떠오르고 있다.

창원짚트랙은 국내에서 가장 긴 거리인 ▲14km의 바다를 가로질러 소쿠리섬까지 최고시속 80km로 활강하는 '짚트랙' ▲출발지까지 최고시속 70km로 달려서 돌아오는 '제트보트 코스' ▲국내 최고 높이인 구구 타워(99m)에서 와이어에 몸을 묶고 94m 높이의 건물 외벽 모서리 62m를 걷는 간담이 서늘한 '엠티워크' 등 이색 체험시설로 구성됐다.

겨울 이색스포츠로도 인기를 얻고 있는 창원짚트랙 구간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긴 1천399m다. 총 6개 라인으로 구성됐고 두 사람이 함께 탈 수 있다. 쇠줄에 연결된 와이어와 안전고리에 몸을 맡기고

시속 80km 속도로 활강하면 온몸으로 느끼는 스릴은 전을 그 자체다. 이어서 출발지까지 제트보트를 타고 시속 70km로 돌아오는 코스는 이색 겨울스포츠의 꽃이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주)창원짚트랙은 창원시가 새로운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유치한 민간사업이다.

창원짚트랙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을 대량 구매해 짚트랙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누비전' 지급은 지역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



**특례시를 통해,
창원다움의 가치를 창조하여
세계속으로 도약하는
창원시대를 열겠습니다.**

